

스포츠동아와 청춘스포츠가 1929(19~29세) 세대 객원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젊은이 페이지 'YOUNG' 섹션을 신설합니다. 'YOUNG' 객원기자들은 뜨거운 젊음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스포츠를 위해 활활 태우며 살아가는 '스포츠 덕후'들입니다. 마니아를 넘어선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사랑, 전문가 못지않은 풍부한 지식과 정보력, 그리고 특독 튀는 아이디어와 발랄한 문체로 스포츠의 읽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 골프와 환경, 공존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골프는 아직까지 귀족스포츠 이미지가 강하다. 20대들에게는 골프장보다 축구공과 야구 글러브가 더 친숙하다. 골프와 젊은 세대의 거리가 먼 이유에는 골프의 이미지도 한몫한다. 그 중심에는 환경파괴라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이런 분위기를 타개하고자 세계적인 골프 단체 R&A(영국 왕립골프협회)가 나섰다. R&A는 최근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한국 골프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골프 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R&A에서 제시한 메시지는 공존이었다. 아이작 R&A 이사는 "골프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선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물, 비료, 농약 등 자원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 한 골프장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산책로로 개방하며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젊은 층 유입이 적은 편이다. 지역 사회 및 환경과의 공존을 모색한다면 골프의 대중화가 좀 더 빨리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동혁 객원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FA 로이드' 아리에타, 1점대 방어율 Again?

## 2017 MLB 예비 FA 선수 TOP3

2015년 성적 재현 땀 역대급 계약 예상 SF 투수 쿠에토, 이번 시즌 후 다시 FA 美 대표팀 포수 루크로이, FA 대박 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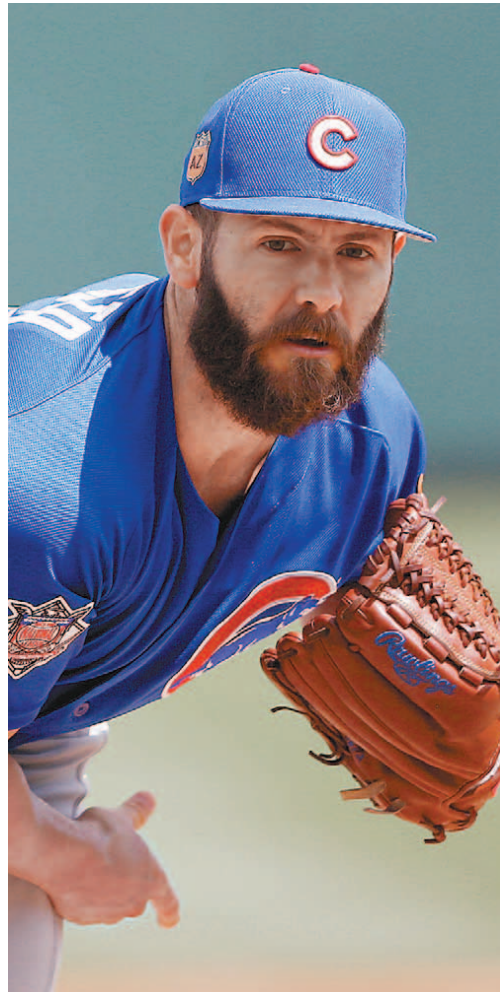
야구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 'FA 대박'. 올 시즌을 맞이하는 메이저리그 예비 FA들은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누가 과연 '합법적인 약물'이라고 일컬어지는 FA 로이드의 최대 수혜자가 될까. 2017시즌 개막을 맞아 가장 '핫'할 것으로 기대되는 MLB 예비 FA 선수 TOP 3를 꼽아봤다.

### 1 제이크 아리에타(시카고 컵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다르빗슈 유, 자니 쿠에토, 다나가 마사히로 등 각 팀의 에이스급 선발진들이 FA 시장에 대거 나온다. 하지만 그중 단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2015 내셔널리그 사이영위너인 아리에타다. 아리에타는 지난 두 시즌동안 22승, 18승을 거두며 시카고 컵스의 에이스 자리를 차지했다.

아리에타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예비 FA들과는 달리 부상과 흡사 이슈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데뷔 이래 200이닝을 넘겨 던진 경험은 2015년이 처음이었으며, 컵스의 선발진에 진입한 뒤로는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사이영 수상 당시 보여줬던 평균자책점 1.77에 근접하는 시즌 퍼포먼스를 다시 보여줄 수 있다면, 컵스 프런트는 그를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계약 규모를 제시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 시즌 잭 그레인키가 애리조나와 6년 2억 650만 달러 초대형 계약을 맺었던 것을 봤기에, 아리에타 역시 이를 뛰어넘는 계약을 노릴 것이다. 그레인키보다 계약 당시의 나이로는 한 살이 어린 것도 올 시즌의 성적이 아리에타의 향후 계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2017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과 함께 'FA 로이드'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꼽히는 투수 제이크 아리에타, 자니 쿠에토, 조나단 루크로이(왼쪽부터), AP뉴시스

### 2 자니 쿠에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쿠에토는 지난 시즌 작전 캡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하며 6년 1억3000만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세부 조항에 2년 뒤 윌트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쿠에토는 다시 FA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쿠에토는 지난 시즌 219.2이닝 18승5패, 2.79의 평균자책점 기록을 남겼다. 그중 완투도 무려 5번이나 기록했다. 쿠에토 입장에서 당연히 현재의 계약규모보다 더 좋은 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다. 단, 2014년부터 3시즌 연속 200이닝



이상을 던져오고 있다는 것은 장기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불안요소가 될 전망이다.

### 3 조나단 루크로이(텍사스 레인저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조나단 루크로이, JD 마르티네즈, 에릭 호스머, 저스틴 업튼 등 스타급 타자 FA들이 많이 시장에 나온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루크로이는 포지션이 포수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팀들의 구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리그에서 버스터포지와 함께 최고의 포수이자, 지난 WBC에서 미국 국가대표팀 포수로도 발탁된 바 있다. 루크로이는 지난 시즌



24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커리어 첫 20홈런을 돌파했다. 동시에 풀타임 주전 포수로서 가장 좋은 OPS(0.855)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비에서도 리그 평균보다 11%나 높은 도루 저지율(39%)을 보였다. 이렇게 공격과 수비 모두 검증이 된 포수가 FA 시장에 뛰어들다면 현재 포수단에 시달리는 구단들의 적극적인 구애가 예상된다.

만일 루크로이가 이번 시즌에서 지난 해 성적만 유지된다면 한다면, 2014년 토론토가 러셀 마틴에게 제시한 5년 8200만 달러의 계약보다도 더 높은 금액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지일 객원기자

## 축구는 피보다 진하다

프랑스·독일, 이민자 출신 대표팀 발탁 유럽축구의 '순혈주의' 무너지는 추세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가 지난 달 26일 막을 내린 2017 삿포르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은메달을 획득했다.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이런 쾌거에는 귀화 선수들의 역할이 컸다. '순혈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귀화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의 이와 같은 호성적은 굉장한 고무적인 일이었다.

축구장에서도 귀화 혹은 국적선택은 오랜 논란거리다. 월드컵이라는 대형 국가 대항전 이벤트가 있는 축구는 애국심, 순혈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축구에서 순혈주의의 장벽은 90년대 말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프랑스는 1998년 자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자, 순혈주의를 버렸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4강 이후 월드컵 본선 진출조차 2회 연속으로 실패하자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 아프리카 알제리계 이민자 출신인 지네딘 지단을 비롯해 다비드 트레제게(아르헨티나), 패트릭 비에이라(세네갈), 드사이(가나), 튀팜(과달루페) 등 해외 이민자 출신 선수들이 프랑스 대표팀으로 발탁되었다.

프랑스의 과감한 변화는 성공적이었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열린 1998년 월드컵과 2년 뒤 유로 2000을 연달아 재패하며 세계 축구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프랑스의 사례는 축구계 순혈주의 타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

20세기까지 만해도 '게르만 순혈주의'는 독일 축구를 지배하는 정서였다.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도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선수로만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차군단' 독일은 1998년 프랑스월드컵 8강 탈락, 유로 2000에서는 조별 리그 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채 조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한 프랑스 대표팀. 사진출처 | FIFA 공식홈페이지

기 탈락하면서 암흑기에 빠졌다. 독일 대표팀이 '늑신 전차'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것도 이때였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독일은 2000년대 들어 '게르만 순혈주의'를 과감하게 타파했다.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귀화선수와 이민자 후손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쳤다. 미로슬라프 클로제(폴란드), 루카스 포돌스키(폴란드), 메수트 외질(터키), 사미 케디라(튀니지), 제롬 보아텡(가나) 등을 대표팀으로 선발하며 독일은 축

구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탈게르만 순혈주의'는 독일 축구 부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준우승, 2006년 독일 월드컵 4강, 유로 2008 준우승, 2010년 남아공 월드컵 4강, 유로 2012 4강, 2014 파파 월드컵 우승, 2016 유로 4강. 21세기 들어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4강 이상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우며 전차군단의 부활을 알렸다.

다국종적이 있는 축구 선수들은 애국심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대표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들이 많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 대표팀에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대표를 선택한 페페와 데쿠, 스페인 국적을 선택한 마르코스 세나와 디에고 코스타, 크로아티아 대표팀을 선택한 에두아르도 실바 등이 있다.

이미 타 종목에선 순혈주의가 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평창 올림픽을 맞아 동계 스포츠를 중심으로 교포 2·3세 선수들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월드컵에서 다양한 피부색의 대한민국 대표팀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임수환 객원기자

## 올드 파이터 노재길의 로직...영 파이터 뺨치네

격투기 국가대항전 ICX에서 링 복귀 한일전 판정승 "많은 응원 감사하다"

"저 같은 옛날 선수를 이런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세가 가까운 선수는 관계자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오랜만의 매치에서 승리 뒤 감격의 눈물을 흘린 그의 뒤편에는 태극기가 걸려있었다. 지난달 격투기 국가대항전 ICX(International Championship of Xtreme Fighting)를 통해 화려한 복귀전을 치른 K-MAX 노재길의 이야기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은 K-1 열풍에 빠졌다. 한국식 입식 격투기를 표방한 K-1은 최홍만 등 스타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인기 물이

를 하며 스포츠 이슈의 중심에 섰다.

노재길 역시 그 중심에 있었다. 2006년 김판수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격투기 무대에 진출한 노재길은 킥복싱과 무에타이를 기본으로 한 공격적인 플레이로 마니아층에게 K-MAX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K-1이 휘청이며 노재길의 입지도 불투명해졌다. 결국 노재길은 선수 생활을 정리한 뒤 수도권에 개인 체육관을 운영하며 지도자로 변신했다. 특히 무에타이는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맡으며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노재길은 항상 링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링을 그리워하던 노재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노재길의 숙한 국내 입식 격투기 단체 더 칸이 격투기 국가대항전 ICX에 참여하면

서 노재길의 파이터로의 복귀가 결정된 것이다. 한일전이란 부담감이 있었지만, 노재길은 후배들과 묵묵히 땀 흘리며 대결을 준비해왔다.

1·2차전 한국 대표 파이터들이 승리하며 노재길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특히 한일전이 띄는 특유의 성격 때문에 노재길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경기 초반부터 노재길은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경기 중반 상대 공격에 수세에 몰리기도 했지만, 오른발 로직을 상대 왼쪽 다리 허벅지에 꽂으며 포인트를 올렸다. 노재길의 펀치와 로직 콤비네이션이 위력적이었다. 결국 노재길은 4라운드에 상대에게 한 차례 다운을 얻어내며 3대0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ICX를 통한 복귀전에서 강력한 오른손 펀치를 날리고 있는 노재길(오른쪽)

대회가 끝난 뒤 만난 노재길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노재길은 "오랜만의 경기라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에 동작과 호흡이 급했던 것 같다. KO를 빼앗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실수가 많이 나왔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오랜만에 복귀전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남겼다. 노재길은 "한국 팬들의 응원에 대한 부담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잊혀진 선수였는데 큰 무대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이런 무대가 많아져 후배들도 좋은 여건에서 경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보람 객원기자